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심윤경 소설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입춘이 언제인지 달력에서 찾아 보았다. 놀랍게도 벌써 지나 있었다. 아직 영하의 날씨인데 입춘이 지나다니 당황스러웠다. 무언가 앞서가는 기분으로 달력 앞에 섰는데. 여전히 한참 뒤쳐진 나 자신을 발견했다. 이제 곧 우수(雨水)가 다가온다. 눈이 녹아 빗물이 된다는 절기다. 어쨌거나 나는 달력에서 절기를 찾아본 이날을 기념비적인 날로 여기기로 했다. 나는 드디어 미래를 바라보았다.

어디선가 해 본 성격검사서 제1면 먼저 '과거지향적'이라는 말이 나온 적이 있다. 뻔히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듣기 좋지는 않았다. 세상에서 더 높이 쳐주는 쪽은 '미래지향적 인간'이다. 한반도에 사람이 정착한 이래 언제나 울썩미형 인간은 아집형 인간에게 구박을 받았다. 대한민국이 공화국이 된 이후로 우리는 언제나 과거만 생각하지 말고 미래지향적 시야를 가지라고 잔 소리를 들었다. 과거지향적 울썩미 인간으로 살아오면서 나는 언제나 무언가 변명을 늘어놓아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했다.

나는 과거지향적 인간이다. 나에게서는 이미 일어난 일

미래를 바라보기

만이 실체다. 미래에 대해서는 '어찌 될지 모른다'는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기대하고 예상하고 계획한다는 것을 무용하게 여긴다. 한 친구가 아이들의 교육비, 식비, 연료비, 통신비 등을 생각하며 울해의 가정 예산을 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는데 내 눈에는 아라비안나이트의 요술램프를 문지르는 것처럼 신기하게 보였다. 내가 얼마만큼 먹고 무엇을 할지 미래의 일을 어떻게 안다는 말인가? 미리 계획을 세우면 그대로 하기 딱 싫어지는데.

갑자기 스스로 미래지향성과의 첫 만남이라고 뿌듯해 하며 절기를 찾아보게 된 것은 내가 식물을 기르는 취미를 붙였기 때문이다. 집에 식물을 들이기 시작한지는 어느새 2년이 넘었다. 코로나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나도 남들처럼 집안에서 즐길 만한 취미거리를 찾지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된 식물 가꾸기가 어느새 2년을 넘어 3년차에 접어든 것이다.

초보자의 손에 맡겨진 식물들의 운명은 녹록지 않았다. 화원에 있을 때는 싱싱한 모습이었었는데 우리 집에 오면 비실비실 울거나 별레가 생기고 곧 죽었다. (식물을 기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식물이 죽는 것을 초록다리를 건넜다고 부드럽게 표현한다.) 죽느냐 사느냐가 다급해서 식물의 모양이나 건강 상태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하지만 3년차가 되자 나의 식물들은 우리 집 환경에 적당히 적응한 상태가 되었다. 이제 식물이 죽을까 날마다 들여다보며 노심초사하는 초보 단계를 벗어나, 나는 드디어 미래를 생각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무언가를 키운다는 것은 그 자체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 내 경험에 의하면 모두가 그렇지는 않았다. 그동안 나는 사람 아이와 고양이들을 키워 왔지만 그들은 미래를 생각할 만한 존재들이 아니었다. 고양이는 하루하루 늙어가니 미래를 생각하면 마음 아플 뿐이고, 사람 아이는 그저 예전에 예뻐던 모습을 떠올리게 최고라는 사실을 이미 옛 어른들이 가르쳐 주셨다.

하지만 식물 기르기야말로 미래를 생각하기 좋은 취미생활이다. 시간이 흐르면 식물은 점점 커다래지는데, 무작정 물과 비료만 먹여 당치를 키울 것이 아니라 미래의 식물이 어떤 형태를 가지게 해야 할지 미리 계획하고 때를 놓치지 않게 가지치기를 해서 아름다운 수형이 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식물이 지금 비실비실하고 상태가 좋지 않아도 그것이 내 잘못만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식물의 상태는 당연히 계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것조차 모른 채 식물을 키우기 시작했으므로 나에게서 큰 깨달음이었다. 그것이 내가 달력에서 입춘을 찾아본 이유다. 예전에는 비실비실한 식물이 안타까워서 무작정 영양제와 물세례를 퍼부었다면, 이제는 봄이 올 때까지 초췌한 시기를 견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것들이 지난 2년 동안 식물을 키우면서 배운 것들이다. 드디어 나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 보는 한 가지 방법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삶에 대한 아름다운 은유가 되기도 한다. 미래는 지금보다 나을 수 있고, 그때까지 나는 남루한 시간을 조용히 견딜 것이다.

종교칼럼



김원명 광주원음방송 교무

'3월 운동' 실천해야 참 문명사회 열린다

증가되어 자원의 고갈, 환경의 오염, 핵무기의 위협 등 많은 문제들이 인류적 과제로 당면해 있다.

경산(장웅철) 상사께서 제안한 '3월 운동'(월 개발하고, 월 만들고, 월 쓰자)은 과학기술 문명이 가져온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큰 가르침이고 정신 개혁을 실천하는 길이다. 하지만 나라마다 총력 생산, 총력 수출이 국가 경쟁력의 우선 과제가 되어 있는 사회적 환경에서 월 개발하고, 월 만들고, 월 쓰자는 제안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까. 설사 공감을 한다 하더라도 실천이 뒤따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면 좋은 말씀으로, 또는 경고의 말씀으로 지나치기 쉽다. 더욱이 중독에 가까우니 만큼 편의주의에 젖어 있고 탐욕에 물들어 물질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을 기대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천지개벽 같은 사고의 전환이 아니고는 어려울 터이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라고 망설이고 주저할 일이 아니다. 이 일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기 때문이다. 끝을 모르고 달리는 문명의 속도에 제어장치를 하지 않는다면 인류에게 다가올 파란고해(波瀾苦海)는 더욱 험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천적 경제학자이자 환경운동가로 유명한 에른스트 슈마허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저서를 통해 서구 세계의 경제 구조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는 지금의 이러한 경제 구조를 진정으로 인간을 위하는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작은 것'을 강조한다. 인간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 규모를 유지할

때 비로소 쾌적한 자연 환경과 인간의 행복이 공존하는 경제 구조가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유가와 기후 변화, 자원 문제가 21세기의 화두로 등장하면서 석유나 가스, 석탄 등의 화석 연료 소비를 감축하는 일과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 과제가 되고 있다. 고 박이문 포항공단 교수는 직면한 과학기술 문명의 위기를 극복할 문명의 새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생태학적 세계관을 제시한 바 있다. 그가 말하는 생태학적 세계관은 자연에 대한 과학적 접근과 인식이나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과학기술 문명을 반성적으로 재평가하고 그것의 의미와 기능을 거시적으로 이해하고 통제하지는 데 있다. 그는 먼저 도구적 자연관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간을 자연의 주인이라 자처하며 자연을 정복과 이용의 대상으로 보았던 잘못을 반성하고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보고 더불어 함께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상호관계가 공동체적 협력과 조화로운 우연성으로 바뀌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중요한 것은 물질적 소유의 양과 수가 아니라 정신적 체험의 깊이와 질이다.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무한한 반복이 아니라 내면적 깊이의 체험에 삶의 목적을 둔다. 이러한 성격의 새 문명은 거창하고 화려하고 장식적이고 떠들썩하며 외향적인 것보다 소박하면서도 아담하고, 담백하면서도 우아한 내향적 문화의 꽃을 피우게 될 것이라 했다.

기고



이인범 광주시 정보화담당관

정보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도래를 이야기했다.

그리고 새로운 밀레니엄과 함께 정보화라는 말이 공식적으로 사용되었고, 2010년에는 키워드가 정보에서 데이터로, 2016년부터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와 함께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IoT)이 부각되었다. 새로운 정보와 가치로 인해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그 뿌리는 전산망과 통신이다. 전산망과 통신은 사람으로 말하면 핏줄과 신경이다. 전산과 통신망이 없으면 새로운 미래를 설계·구축할 수도 없고 국가의 발전 또한 기대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정보의 대국이자 최고 선진국이지만 세대 간, 계층 간 정보 격차라는 문제점은 상존하는 게 현실이다.

정부의 정보 격차 해소 노력으로 농어촌 정보화 마을 지정, 초고속 인터넷 회선 증설 등 양적인 측면에서는 진전이 이뤄지고 있으나,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능력의 격차가 여전히 남아 있어 사회적 불평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질적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광주시에서는 정보화에 대한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몇 가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이다. 시민이 접근하기 쉬운 주민센터와 도서관 32개소를 디지털 배움터로 선정해 2020년부터 2만 3000명에게 교육을 실시했다.

두 번째는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집합 정보화 교육이다. 이 교육은 기초, 자격증, 모바일 등 수준별·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보 취약계층의 컴퓨터 활용 능력 향상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

모함은 물론 자격증 취득으로 직업 재할과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장애인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세 번째는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중고 PC를 지원하는 '사랑의 그린 PC' 사업이다. 광주시청과 산하 기관에서 내구연한을 넘긴 PC를 수거해 키보드·마우스 등 하드웨어 교체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재정비하여 2000여 대를 기증했다.

광주시는 올해에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보화 역량 교육과 지원 사업을 통해 정보화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효과적으로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디지털 배움터에서는 디지털 기초·디지털 생활·디지털 심화 과정으로 구분된 79가지 개별 학습 모델을 적용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우수한 콘텐츠를 제작해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 중심의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디지털의 활용은 선택의 수준이 아닌 필수로 영적으로 전환되고 있다. 급변하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기, 광주시는 디지털 격차와 소외 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과 지원을 확대하여 정보소외계층이 당당히 디지털 세상의 주체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다양하고 지속적인 시책 발굴과 실험을 통해 광주시의 디지털 역량을 극대화하고 정보화 사각지대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社說

화정 아이파크 사고 피해보상 등 신속하게

광주시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실종자 구조 작업이 사고 발생 한 달여 만에 모두 마무리됐다. 불행히도 실종자 중에 생존자는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유가족 및 주변 상인에 대한 보상 등은 물론 사고 원인 규명에 따른 책임자 처벌과 철거 방식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당장 해결해야 할 것은 유가족과 주변 상인 및 입주 예정자 등 피해 당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다. 나아가 건물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 어디까지 철거할 것인지와 안전을 위해 최적의 철거 방식은 무엇인지 결정해야 한다. 사상 유례없는 인명 피해를 낳은 만큼 철저하게 사고 원인을 분석해 책임자를 찾아내고 더 이상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 처원의 처벌을 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후속 조치다.

피해 복구는 인허가 주체인 광주 서구청이 전담기구를 설치해 맡고, 광주시와 정부 부처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편파 판정 속 황대헌의 첫 금메달 완벽했다

대한민국 쇼트트랙이 편파 판정을 받고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첫 금메달을 안착한 무결점으로 장식했다. 동계올림픽 개막 97세 만에 들려온 낭보다. 한국 남자 쇼트트랙의 '간판' 황대헌(23·강원도청)이 엇그제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베이징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 결승에서 2분9초219의 기록으로 당당히 우승했다. 스티븐 뒤바우(캐나다, 2분9초254)와 세븐 엘리스트라토프(러시아올림픽위원회, 2분9초267)는 은메달과 동메달을 각각 차지했다.

황대헌은 7일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중국 선수 두 명을 추월하는 감금한 레이스를 펼치고도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실격을 당했던 약물을 털고 보란듯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더구나 결승선 아홉바퀴를 남기고 아웃코스 거침없이 추월, 1위로 올라선 뒤 줄곧 자리를 내주지 않아 심판 판정이 개인할 여지를 아예 허용하지 않았다.

지난 7일 황대헌과 이준서의 납득할 수 없는 실격 처리에 공분했던 국민들에게는

고 한다. 광주 서구청은 이미 밝힌 대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피해 당사자들 사이에 중재를 맡아 적절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피해 복구에 대한 후속 조치에는 광주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필요하면 피해 복구 비용을 먼저 집행하고 시공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광주시 조례에는 피해자에 생활안전자금 등 피해 수습 비용을 우선 지원하고 재발 원인 제공자에게 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붕괴 사고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밝혀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있도록 수사에 총력을 기울여 한 점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된다. 사고 원인으로 꼽히는 콘크리트 양생 불량, 지지대의 불법 철거, 편법 재하도급 등 부실시공에 대한 원청의 책임도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다.

시원한 청량제가 되기에 충분한 메달이었다. 황대헌과 레이스를 벌였던 다른 정상 선수들도 모두 축하 인사를 건넨 정도로 만족하고 당당히 결과였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 온라인판도 "황대헌의 우승은 중국 네티즌들의 존중(respect)을 받았다"며 "논쟁 없이 진짜 실력을 보여 주었으며, 올림픽은 이래야 한다"고 네티즌들이 말했다"고 소개했다. 황대헌의 금메달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됐다. 그는 불공정·불평등한 경쟁 여건에서 실력으로 값진 성과를 일궈내 진정한 승부가 무엇인지를 보여 주었다. 어떤 난관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도전해야 한다는 점도 각인시켰다.

오늘 밤 최민정(성남시청)과 이유빈(연세대)이 쇼트트랙 여자 1000m 준준결승에 나서 금메달 사냥에 나선다. 대한민국 선수들이 금메달 낭보를 전해주는 것은 물론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간 승리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란다.

無等鼓

'스포츠의 꽃' 올림픽에는 오랜 역사만큼이나 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잘못된 판정이 낳은 수많은 오심 논란이 그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 선수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에서 김동성도 그랬다. 쇼트트랙 남자 1500m 결승에서 1위로 골인하고도 안톤 오노(미국)의 할리우드액션으로 인해 실격 처리되면서 금메달을 도둑맞은 것이다.

2014년 소치에서는 피겨스케이팅 김연아가 희생양이 됐다. 싱글에서 쇼트와 프리 모두 완벽한 연기력을

오심 올림픽

어설픈 연기를 펼치고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한 2012 런던 하계올림픽 펜싱에서 나온 신아람의 '뭇쥐 버린 1초'는 세계 스포츠팬의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오심도 경기의 일부'라는 말이 있긴 하다. 하지만 오심이 승패를 좌우할 때 그것은 오점일 뿐이며, 만약 의도적이라면 이는 논란이다. 그래서 지금은 경기마다 비디오판독(VAR) 시스템을 도입, 판정 오류를 줄이고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베이징동계올림픽 쇼트트랙에

서는 비디오 판독만 했다 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판정이 나오곤 했다.

이 때문에 관중들이 선수들의 결승선 통과 순위보다 페널티 여부를 더 궁금하게 여기는 이상한 대화가 되고 말았다. 판정이 뒤바뀌면 어김없이 중국 선수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을 과연 우연으로만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 모두는 1000m에서 황당할 판정으로 실격을 당한 황대헌 선수와 1500m에서 금메달을 따는 순간까지 가슴을 졸일 수밖에 없었다. TV 중계방송을 통해 같은 조에 중국 선수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했다.

상대 선수를 손으로 쓰러뜨리고서라도 기어 금메달을 따야겠다는 선수들. 이를 격려하는 코치와 환호하는 중국 관중들, 그리고 심판 판정이 뭐가 문제냐며 큰소리치는 언론. 이번에 베이징올림픽을 개최한 중국을 생각하면 분노를 넘어 안쓰러기까지 하다. 인구 세계 1위에 경제 규모도 세계 2위의 국가지만, 아무래도 국제사회의 리더와 대국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번 베이징올림픽의 슬로건은 공교롭게도 '함께하는 미래'다. /유재만 편집1부장 jkyou@

Table with 2 columns: 광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